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25-163
<https://doi.org/10.29212/mh.2019..110.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윤성호*

1. 서론
2.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
3.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4. 결론

1. 서론

4~5세기에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진출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삼국사기』 등의 사료와 1977년에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 등의 금석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한 것은 30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1980년대부터 고구려 고분은 간헐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였으나, 고구려의 군사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인 관방시설에 대한 논의는 1988년 서울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광구사이부장경호와 같은 전형적인 고구려 유물이 확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인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¹⁾

이후 아차산과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관방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²⁾ 1997년 아차산 4보루를 시작으로 남한 지역에서는 20여 개소의 관방시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와 함께 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 조사 성과가 축적되었고,³⁾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고 있다.⁴⁾

또한 고구려 유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아차산 일대의 관방시설 조사 현황과 소실된 유적에 대한 자료도 정리되고 있다.⁵⁾ 이와 같은 기초작업을 통하여 고구려 관방시

-
- 1) 몽촌토성 조사에 앞서 1977년에 조사된 구의동 보루 출토 유물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고구려의 관방시설임을 확인한 연구가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 연구의 시발이 되었다(崔鍾澤, 「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대하여」,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3, 1991).
 - 2) 심광주·윤우준, 「문화유적」,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 3) 건국대학교 박물관·광진문화원, 『서울 廣津區 峨嵯山·龍馬山 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한양대학교 박물관,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京畿道篇』, 2000 ; 서울대학교박물관,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0(a)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 문화유적(1)』, 2001 ;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소재 성곽 조사 보고서』, 2003 ; 京畿道博物館,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4)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하여 기왕에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 山城과 關防體系』, 고구려 연구회, 1999 ; 「최근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韓國先史考古學』 11, 2005 ; 「호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百濟研究』 63, 2016 ; 白種伍,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 이정범,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 『한·중·일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고구려발해학회, 2017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학술대회 자료집)』,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2018.

설의 구조와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그렇지만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와 연구는 아직도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까지 지속된 조사 성과를 재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2장에서 최근 조사된 성과를 크게 4개 지역군으로 나누어 정리한 뒤에 고구려 관방시설의 분포범위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기왕의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크게 고구려 관방시설 유형과 남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운영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부지역 이남과 중국 지역의 유사한 규모와 입지의 관방시설을 살펴보고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은 매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신규 자료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기왕에도 선학들의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러한 자료에 최근 조사 성과를 추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군사사 분야의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

예성강 일대에는 고구려의 수도 인근과 유사한 대형 고구려 산성이 확인되지만, 임진강 이남지역에서는 대규모 관방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을 권역을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군으로 묶어볼 수 있다.

남한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대전 월평동 유적을 포함하여 “금강

5)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a).

6)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양시은,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2016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미호천 유역권”, 서울 아차산 일대 보루군을 중심으로 “한강-중랑천 유역권”, “양주 분지권”과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권역별로 조사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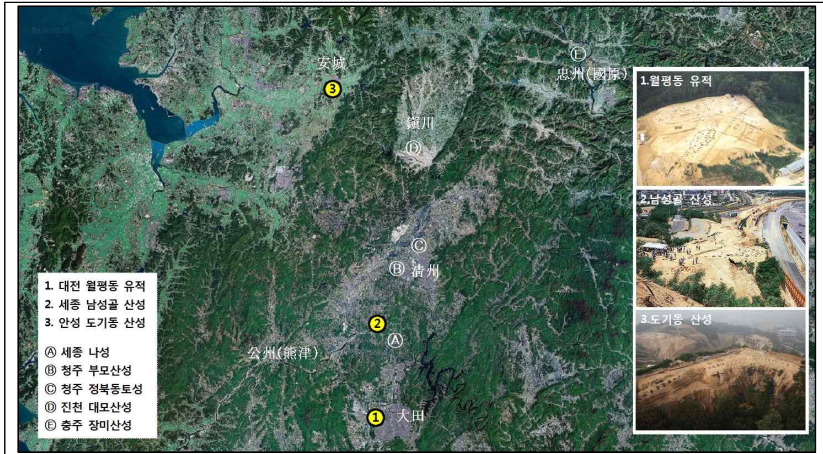
가. 금강-미호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금강-미호천 유역의 범위는 고구려 남진 거점인 국원에서 남쪽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지역에 해당한다. 현재 남한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고구려 관방시설은 대전 월평동 유적(圖1-1)이다. 1990년에 조사된 대전 월평동 유적은 백제의 월평동 산성과 연결되는 유적이므로, 이를 묶어 월평산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월평동 유적에서는 1열의 목책으로 된 목책1과 내외 2열로 구성된 목책2가 있고, 목책2와 동일한 방향의 성벽1과 백제의 성벽인 성벽2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목책2의 경우 약 1.5m 간격의 기둥 사이에 할석을 쌓고 외면에 점토다짐을 한 구조이고, 성벽2의 경우 성벽1을 파괴하고 북쪽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월평동 산성과 연결되는 후대 백제의 유구에 해당한다.⁷⁾

세종 남성골 산성(圖1-2)은 2001과 2006년에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 둘레 700m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외부 2중의 목책열과 목책 외부에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책 내부는 흙으로 다져서 채우고, 석축은 점토를 섞어 쌓아서 외부에는 기초부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목책도니성의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성내부에서는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 8기, 원형수혈 251기, 수혈 25기 등의 다수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백제 토기와 함께 고구려 금제이식을 포함

7)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 月坪洞 遺蹟』, 1999. 조사 면적이 협소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자 간에 목책과 석축의 조성 주체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최종택, 앞의 논문, 2016 ;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축성 주체와 위상」, 『백제연구』 63, 2016 ; 김길식, 「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 관방시설 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7, 2017).

한 다량의 고구려 토기들이 확인되어 월평동 유적과 같이 백제의 관방시설을 고구려가 재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



[圖 1] 금강-미호천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고구려 유물 출토 산성 분포

한편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하여 국원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 장미산성(圖1-⑤)에서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고구려가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구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세종 나성(圖1-④),¹⁰⁾ 청주 부모산성(圖1-⑥),¹¹⁾ 청주 정북동 토성(圖1-⑦),¹²⁾ 진천 대모산성

8) 忠北大學校博物館,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 중원문화재연구원, 『清原 IC-芙蓉道 道路工事區間內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2008.

9) 中原文化財研究院,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6 ; 박중균, 「장미산성 출토 토器的 양상과 성격」, 『東亞世亞 歷史文化論叢』, 서경문화사, 2014.

10) 중원문화재연구원, 『行政中心複合都市 中央綠地空間 및 生活圈 2-4區域 內 低濕8遺蹟(北峯) 燕岐 羅城里遺蹟』, 2015.

11) 청주 부모산성 복문지와 수구지 일대에서는 보주형 개편과 부모산성 1보루 북서쪽에서 장동호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토기들은 고구려토기 혹은 고구려계 토기로 파악된다(박중균, 「父母山城 出土 土器的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3, 118쪽).

12) 청주 정북동 토성 북동편 해자 최상층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다(충북대학교

(圖1-④)의 경우와 동일하다.¹³⁾ 그렇지만 고구려의 진출 이전에 백제가 먼저 관방시설을 구축한 것은 확인되고, 월평동 유적이거나 남성골 산성과 입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조사를 통하여 고구려의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안성 도기동 산성(圖1-3)은 주변 지역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적열로 추정되는 유구가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는데,¹⁴⁾ 2015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기동 산성은 전체 둘레가 1.4km에 이르는 남한 지역 최대 규모의 고구려 관방시설이다. 도기동 산성은 안성천 지역에 위치하여 금강-미호천 유역과 이격되어 있지만, 백제 토성 위에 이중의 목적을 조성한 방식은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골 산성과 유사하다.¹⁵⁾

나.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한강-중랑천 유역권”은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과 한강을 두고 마주한 아차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현재의 관방시설보다 많은 수가 확인되는데,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일부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¹⁶⁾ 아차산에는 7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되며, 이와 연결된 흥련봉(2개소)과 용마산(8개소), 망우산(3개소)에서 총 20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차산 서편에 중랑천을 마주한 배봉산과 북편에 독립된 구릉인

박물관, 『청주 정북동토성』Ⅳ, 2018).

13) 진천 대모산성 내성의 북편에서 고구려 옹 1점이 수습된바 있다(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6).

14)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 ; 세종대학교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유적』, 2016.

15)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2017 ;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산성』, 2018.

16) 윤성호, 앞의 논문, 2017(a), 76~84쪽.

봉화산에서도 각각 1개소의 시설이 확인되었고, 중랑천을 따라서 아차산 북편으로 연결되는 수락산에서도 3개소의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방시설은 아차산 일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산 성과는 구별하고자 보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보루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아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석으로 축조한 성채를 가진 소규모의 군사시설을 의미하는데, 규모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한강유역에서 임진강을 연결하는 지점의 관방시설을 참고하여 둘레 300m를 보루의 범위로 설정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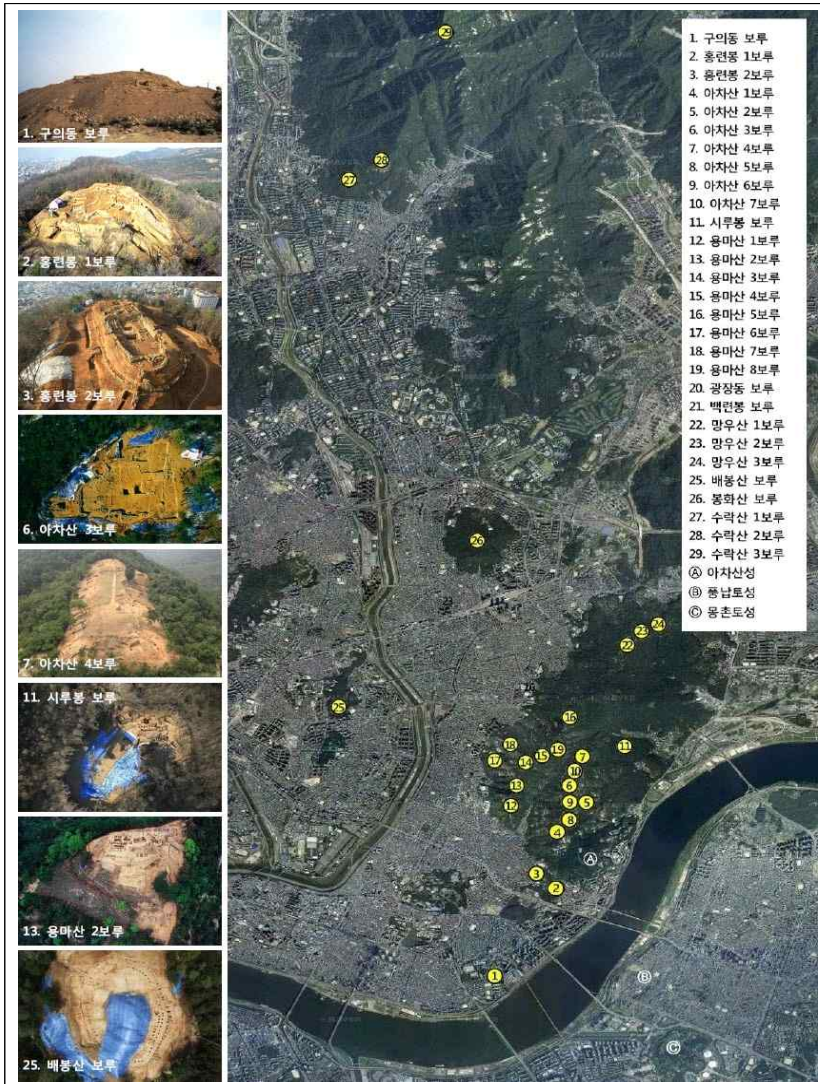
현재는 소멸되었으나 아차산에서 남서편으로 한강변에 독립된 소구릉에 위치한 구의동 보루(圖2-1)는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고구려 관방시설이다.¹⁸⁾ 구의동 보루는 둘레가 46m의 소형 보루이지만 화재로 붕괴되어 다양한 유물이 남아있었고, 건물지가 목구조에 판재를 붙여 올린 벽체가 있는 구조임이 밝혀졌다.

아차산 남서편의 독립된 구릉인 흥련봉에는 2개소의 보루가 있다. 흥련봉 1·2보루는 2004~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성벽과 성내부 건물지뿐만 아니라, 보루의 외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외황과 보루를 연결하는 도로 유구도 확인되었다.

흥련봉 1보루(圖2-2)는 둘레가 140m의 석축으로 된 이중성벽과 내부 판축대지 위에 20여 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아차산 일대 보루 중에서 유일하게 연화문 와당 7점이 확인되어, 한강유역에서 가장 위계 있는 건물이 설치된 보루임을 알 수 있다. 흥련봉 2보루(圖2-3)는 둘레가 204m로 내부는 고대지와 함몰지로 구분된 내부 구획에 11기의 건물지와 저장시설 4기가 확인되었으며, 계단시설과 암거식 배수시설이 완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축조 당시에

17)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包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1999, 61쪽.

18) 華陽地區發掘調査團,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 1977 ;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997.



[圖 2] 한강-중랑천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고구려 유물 출토 산성 배치

토사를 확보하고, 운영시 배수기능과 성벽을 높여주는 기능을 부가하고자 외황을 외곽으로 돌린 것도 확인되었다.¹⁹⁾

아차산 정상부에 위치한 아차산 3보루(圖2-6)는 2005년에 남쪽

치와 내부 건물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잔존한 성벽을 기준으로 전체 둘레는 431m에 이르러 소형 산성에 가깝지만, 남쪽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에서도 건물지 8기, 배수시설 3기, 방앗간 1기 등이 확인되었다.²⁰⁾

또한 아차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상의 구릉에 위치한 아차산 4보루(圖2-7)는 몽촌토성(圖2-㉔)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남한 지역에 고구려 토기의 존재가 확인된 후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7~98년의 조사에서 아차산 4보루는 둘레가 256m이며, 내부에서 건물지 7기, 집수시설 2기, 구들시설 13기 등이 확인되었다.²¹⁾ 2007년의 성벽에 대한 보완조사에서 총 5개의 치를 조사하였다.²²⁾ 아차산의 서편에 위치한 용마산에서는 8개소의 보루 중에서, 용마산 2보루(圖2-13)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05~06년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둘레 79m의 소규모 보루임에도 4기의 건물지와 집수시설이 조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남동편으로 아차산 4보루의 남쪽치와 같은 이중 구조로 된 치가 조사되어 주목을 받았다.²³⁾

용마산과 연결된 망우산에서는 3개소의 보루가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는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아차산 북동편으로 연결되는 봉우리에 위치한 시루봉 보루(圖2-11)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둘레 205m의 규모로 성내부에서는 여타 보루와 유사한 건물지와 집수시설이 확인되었으나, 성 외곽으로 연결된 이중 석렬이 조사되어 흥련봉 2보루 외황과 비교 자료가 되고 있다.²⁴⁾

19)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綜合報告書-』, 2007(a) ; 『紅蓮峰 第2堡壘 -1次發掘調査報告書-』, 2007(b)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흥련봉 1·2보루』, 2015 ; 『흥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20)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峨嵯山 第3堡壘 -1次發掘調査報告書-』, 2007(c).

21)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b).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23) 서울대학교박물관,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그리고 기왕에 지표조사에서 고구려 관방유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배봉산에서도 배봉산 보루(圖2-25)가 확인되어 2016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상단부의 유실이 심하고, 석축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성내부의 판축다짐 구조와 외곽 석축 성벽의 축조방식은 대체로 흥련봉 1보루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⁵⁾

또한 수락산 1보루(圖2-27) 성벽의 2지점에 대한 표본조사가 진행되었다. 2개소의 트렌치 조사였으나,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성벽의 구조와 출토 유물 양상은 아차산 일대 보루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⁶⁾ 봉화산 보루(圖2-26)도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시굴조사를 위한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사결과 서벽과 남벽에서 잔존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인 외형은 수락산 1보루처럼 아차산 일대 보루의 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²⁷⁾

한편 아차산의 남쪽 자락에서 풍납토성(圖2-㉔)과 마주한 아차산성(圖2-㉓)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다. 특히 흥련봉 보루와 동일한 모티브의 와당이 확인되었다.²⁸⁾ 이는 금강-미호천 유역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는 백제 산성과 유사하여, 향후 기타 보루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은 작은 봉우리를

24)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 『시루봉보루』Ⅱ, 2013.

25)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배봉산 보루 유적』, 2018(a).

26) 국방문화재연구원, 『수락산 보루 종합정비 계획』, 2018.

27)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보루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2018(b). 앞서 봉화산 보루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고구려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 도당 부속건물 개축 및 정비사업 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7). 성벽 상단부와 내부는 조선시대 이후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6 ;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3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7 ;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4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8.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차산 3보루를 제외하면 둘레 300m 미만의 보루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루는 중랑천을 따라 북쪽으로 양주분지까지 연결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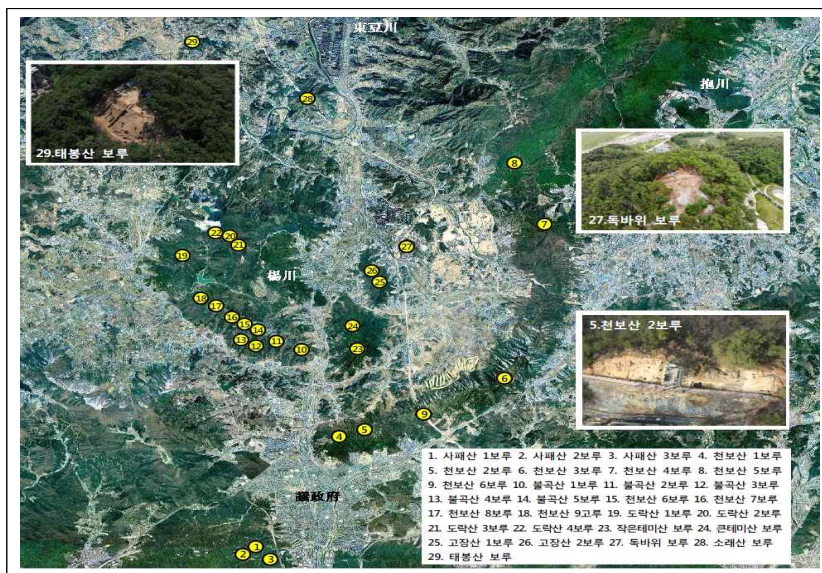
다. 양주 분지의 고구려 관방 시설

“양주 분지권”의 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중랑천의 서편에는 의정부 사패산 보루군(3개소)이 위치한다. 양주분지의 동편으로 천보산 보루군(6개소)과 서편으로는 불곡산 보루군(9개소)과 도락산 보루군(5개소)이 원형으로 촘촘하게 분지를 감싸고 배치되었다.

양주 분지 내부에도 주요 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한 구릉 일대에는 고장산 1~2보루, 큰테미산 보루, 작은테미산 보루, 독바위 보루가 위치하며, 양주 분지에서 동두천-연천 전곡 방향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에는 소래산 보루, 칠중성이 위치한 파주 적성의 임진강에 연결되는 교통로에는 태봉산 보루가 위치한다. 총 30개소의 보루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3개소만 조사가 진행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조사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천보산 정상의 서편 봉우리에 위치한 천보산 2보루(圖3-5)에서는 보루의 북쪽편을 대상으로 2012년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추정 성벽 둘레는 약 106m인데, 성벽 일부와 치 1개소, 구들 건물지 3기, 집수지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치 내외부에서 목책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훼손이 심하여 성벽 구조를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출토되는 유물과 유구의 양상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큰 차이가 없다.²⁹⁾

29)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圖 3] 양주분지 고구려 관방시설

태봉산 보루(圖3-28)는 2014~17년에 4차례에 걸쳐 둘레 143m의 성벽과 내부를 절반 정도 조사하였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과 유사하였으나, 여타 보루와 달리 신라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서 순수하게 고구려가 축조하여 사용하고 폐기된 보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⁰⁾

한편 2018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된 독바위보루(圖3-27)에서는 석축 성벽, 구들 건물지,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기와의 조사된 보루 중에서 유일하게 한성백제 타날문토기편이 고구려·신라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³¹⁾

3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 2016 ; 『양주 태봉산 보루』 II, 2017 ; 『양주 태봉산 보루』 III·IV, 2018.

31) 화서문화재연구원,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라.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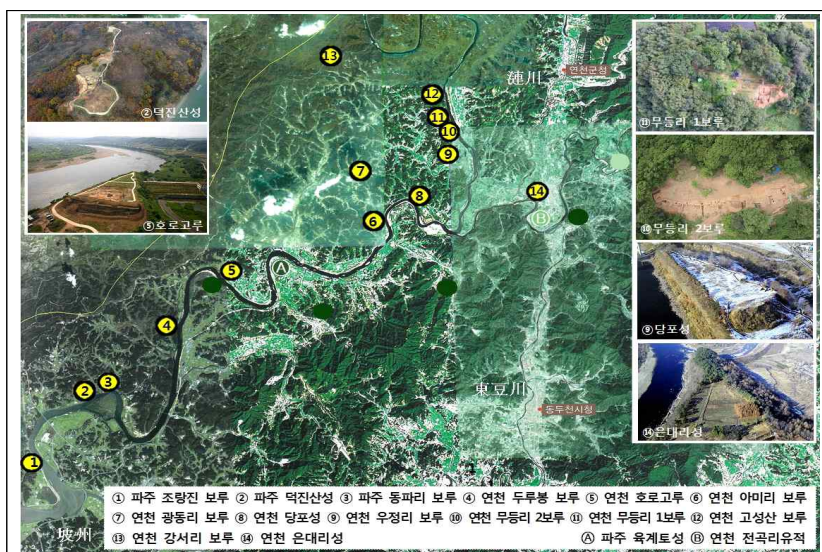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북쪽에 관방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강의 주요 도강 지점에 작은 천이 합류하는 삼각형 지형을 활용하여 축조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이 위치한다.

임진강 최남단에서부터 파주 조랑진 보루, 덕진산성, 동파리 보루, 연천 호로그루, 아미리 보루, 광동리 보루, 우정리 보루, 무등리 1·2보루, 고성산 보루, 강서리 보루가 있고, 임진강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관방시설이 위치한다.³²⁾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당포성이 위치하고, 한탄강을 따라 동편에 은대리성이 있다. 은대리성보다 한탄강 상류(연천군 전곡읍 동편)에서 고구려 관방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연천 호로그루(圖4-5)는 2001~16년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체둘레는 401m 중에서 동벽 93m만 성벽이 축조되었다. 동벽하단부에서는 선대 목책의 존재가 확인되어 현재의 성벽이 조성되기 이전에 시설물이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목책의 상단부에 관축을 한 뒤에 외벽에 석축으로 마감하고, 성벽 외부에 보축성벽을 축조한 점에서 한강유역과 양주분지 일대 보루의 구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목구조로 보강한 집수시설도 확인되었다.³³⁾

32) 북한 지역의 임진강변에 위치하는 이천 성산고성, 철원 망경산성, 노기산성, 삭령산성은 둘레 600m 미만의 산정식 관방시설이며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는데, 한강 이북 지역의 보루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Ⅳ(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圖 4] 임진강-한탄강 유역 관방시설

당포성(圖4-8)은 2000~06년까지 2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둘레 50m의 동벽은 호로고루와 유사한 입지에 동일한 방식으로 판축토성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보축을 붙인 구조임이 확인되었다.³⁴⁾

은대리성(圖4-14)은 2003년~17년까지 3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역시 동일한 입지에 판축 중심의 성벽인데, 내외벽을 석축으로 보강한 정도의 구조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타 관방시설과 다르게 5세기대의 토기만 확인되어 중요한 편년기준이 되고 있다.³⁵⁾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 덕진산성(圖4-2)도 2012~18년까지

3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Ⅱ-시굴조사 보고서-』, 2008.

3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기존 조사에서 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석축을 근거로 복곽식의 내외성 이중구조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 성 내부에 조선시대 건물의 축대인 것이 밝혀졌다. 즉, 은대리성의 내부 구조도 호로고루, 당포성과 유사한 것이다(중앙문 화재연구원, 『연천 은대리성 성내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7).

6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덕진산성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조선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수개축이 진행되어 장기간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치와 서벽에서 고구려의 초축부가 조사되었다. 고구려 초축구간 외곽으로 통일신라시대에 2차례 수축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고구려의 초축성벽 상단을 보강하여 수축한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고구려의 축조 구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루의 축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³⁶⁾

그리고 임진강과 한탄강의 하안에 위치한 성곽과는 다르게 다수의 보루형 관방시설들이 강의 북편과 서편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연천 무등리 보루군만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무등리 1보루(圖4-11)는 2017년 조사에서 둘레가 약 200m이고, 단순히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구조가 아닌 석축에 뒤채움이 들어간 특이한 축성방식이 확인되었다.³⁷⁾

2010~12년까지 조사한 무등리 2보루(圖4-10)는 둘레가 350m인데 토축부에 석축을 붙인 구조는 타보루와 유사하지만, 성벽 하단부에 불다짐층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³⁸⁾

한편 유구는 명확하지 않지만, 파주 육계토성(圖4-㉑) 내부에서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연천 전곡리 유적(圖4-㉒)에 대한 조사에서 구릉이 토성이 아닌 것은 확인되었으나, 내부 평탄면에서는 고구려 토기들이 확인된바 있다.³⁹⁾ 한탄강을 따라 철원 방면으로 연결되고, 양주분지에서 추가

36)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坡州 德津山城 -3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2016 ;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학술발굴조사 결과보고서』, 2017 ; 『파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37)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 이정은·김현우, 「연천 무등리 보루군 발굴조사의 성과」, 『연천 무등리 보루군의 성격과 의미(무등리 보루군 사적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연천군·고구려발해학회, 2018.

38)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39)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령구조곡으로 철원으로 가는 합류지점인 포천 반월산성의 북쪽 고대지 등지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현재의 산성 내부에 고구려가 소규모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⁴⁰⁾

3.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고구려 관방시설 유형과 남진 방향

앞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조가 밝혀진 20개소의 고구려 관방 시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① 백제 토성을 재활용하여 목책을 세운 뒤 내부에 점토 등으로 다지고, 목책 외면에 석축과 점토로 보강한 목책도니성이다. ② 구릉 정상부에 외면에 석축을 붙이고 내면에 영정주를 넣어 관측으로 다져올리는 구조이고, 산정상부에 여타 보루와 군집을 이루면서 조성된 보루이다. ③ 임진강과 한탄강의 도강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에 작은 하천과 합류하는 삼각형의 하안단구 위에 보루와 같은 구조로 한쪽면만 성벽을 구성하는 강안평지성의 관방시설이다. 이중 목책도니성은 금강-미호천 유역과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진강변의 호로고루는 동벽하단부에 선대의 목책이 확인된 바 있다. 보루는 한강 북안에서 중랑천을 따라서 양주분지와 임진강까지 연결되는 두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안단구 위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곽은 임진강-한탄강변에 위치하며, 임진강 북안의 관방시설은 한강-중랑천, 양주분지의 보루와 구조나 입지는 대동소이하다.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릉리 2보루』, 2015.

4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Ⅰ)-』,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96~101쪽.

아직 고구려 관방시설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남진을 개시하여,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진한 결과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곡 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⁴¹⁾ 또한 보루 내부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간격의 수혈을 목책도니성의 목책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목책단계에서 내부에 관축을 하면서 외부에 석축이 부가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었다.⁴²⁾

그렇지만 흥련봉 1·2보루에 대한 2차 조사 이후 목책성의 축성 방식과 보루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³⁾ 다만, 초축단계부터 관축으로 구성된 토성과 외면의 석축부를 동시에 조성하는 토심석축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견해와 토성과 같이 관축부를 조성하고 외면을 깎아내어 석축을 붙이는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는 『충주 고구려비』의 조성시기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비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는 449년 이전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으로 남하하여 국원을 설치하고, 신라와 백제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지를 받고 있다.⁴⁵⁾

41) 최종택, 앞의 책, 2013, 267쪽.

42) 기왕의 연구자들도 최근에 발굴조사된 성과를 바탕으로 목책에서 석축으로 개축되는 단계 설정은 철회하였다(최종택, 앞의 책, 2013, 193~202쪽 ; 양시은, 2016, 앞의 책, 95~97쪽).

43) 심광주, 「고구려 성과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광진구·한강문화재단연구원』, 2014, 37~45쪽 ;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 『과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121~149쪽.

44) 안성현, 「흥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百濟文化』 55, 2016, 130~133쪽.

45) 『충주 고구려비』가 449년에 건립되었다는 견해(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1979, 89~92쪽 ;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4~7쪽 ; 篠原啓方,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의

즉, 금강-미호천 류역의 대전 월평동 유적과 세종 남성골 산성은 5세기 중엽 이전에 고구려가 진출한 국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일시적으로 진출한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주목되는 것이다.⁴⁶⁾ 구조적으로 동일한 안성 도기동 산성도 출토되는 유물이 6세기를 넘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한강 이남에서 안성천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주-진천-죽산-안성으로 고구려가 서진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구려는 475년에 한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남한강-달천 유역의 충주 방면으로 남진하였고, 충주를 중심으로 미호천을 따라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백제의 관방시설을 점령하여 수개축한 뒤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여 나제동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목적도 수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⁷⁾

이에 앞서 고구려는 5세기를 전후하여 임진강 일대에서 백제와 공세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파주 육계토성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5세기 이전에 임진강-한탄강 유역으로 남진하여 관방시설을 구축하였고(圖5-I기), 5세기 중반경에 춘천-홍천-원주-충주의 경로로 남진하여 충주를 국원으로 삼아 남쪽 대전까지 진출하여 백제를 압박하였다(圖5-II기). 그리고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고구려는 다시 한강을 도하하여 탄천을 따라서 용인 일대까지 남하한 뒤에 백제와 한강 유역을 두고 공방을 벌

의], 『史叢』 51, 2000, 28~36쪽; 朴京哲,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 -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先史와 古代』 15, 2000, 283쪽;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380~391쪽.

46) 정운용, 「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構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 53~91쪽; 白種伍,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の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240쪽;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95쪽; 신광철,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62쪽.

47)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7(b), 66~67쪽.

인 것(圖5-Ⅲ기)임을 관방시설의 배치와 유형 구분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圖 5] 고구려 관방시설의 배치와 남진 단계

반면에 기왕의 통설을 보완하여 월평동 유적, 남성골 산성, 도기동 산성 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가 5세기 후반대로 편년되기 때문에 475년에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한 대전까지 남하하였고, 관방시설을 운영하며 백제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⁴⁸⁾ 따라서 고구려 남진의 방향성은 향후 추가 조사와 논의를 통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고구려 관방시설의 운영시기

기왕에 한강-중랑천 유역의 고구려 보루의 축조와 운영시기에 대

48) 양시은, 「백제 웅진기 동북쪽 영토와 지방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114~120쪽.

해서는 6세기 초반에 축조되어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551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몽촌토성에서 5세기 후반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된 것을 근거로 475년에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한성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미쳤으나,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자 한강 이북 아차산을 중심으로 보루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⁴⁹⁾ 그런데 최근에 475~551년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529년 오곡 전투 이후에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입장에서 한강-중랑천 유역 보루의 축조 상한을 529년 이후로 상정하는 견해들도 나오게 되었다.⁵⁰⁾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기록에 착안하여 이 시기에 고구려 보루가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551년 이후 신라의 주가 치폐를 거듭한 것과 영역의 변동을 결부하여 고구려는 6세기 중반 한강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아차산에 보루를 재사용하였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한 604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나온바 있다.⁵¹⁾

이에 더하여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6기의 획기로 나누어 529~551년, 568년~604년 사이에 아차산에 고구려 보루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⁵²⁾ 그리고 고구려가 장기간 운영한 연천 호로고루 토기를 분석하여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초축 시기를 ①호로고루 1기(5세기 중엽~후엽)-구의동 보루, ②호로고루 2기(6세기 전엽~중엽)에는 흥련봉 1·2보루, 아차산 3·4보루, ③호로고

49)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역사적 성격」, 『鄉土서울』 64, 2004, 117~122쪽; 양시은, 앞의 논문, 2010, 54~58쪽.

50) 金榮官,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 2000, 86~89쪽; 沈光注, 「南韓地域의 高句麗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483~490쪽.

51) 서영일,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研究」, 『文化史學』 17, 2002, 73쪽.

52) 金英燮, 『峨嵯山 高句麗 堡壘群의 재고찰』, 檀國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9, 34~50쪽.

루 3기(6세기 후엽 이후)에는 용마산 2보루, 시루봉 보루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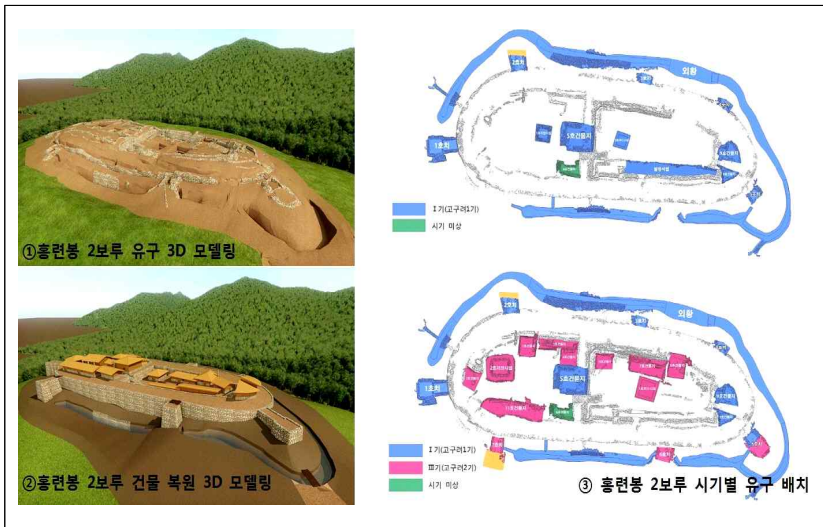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연구자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루의 수개축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왕에 조사된 구의동 보루, 흥련봉 1·2보루와 아차산 3·4보루에 대한 보고서에도 수개축이 있었던 흔적을 확인한 바 있지만, 흥련봉 2보루의 잔존 유구를 3D모델링 작업을 해보면 건물 간 중복이 확인된다(圖6-1·2).⁵⁴⁾ 이에 유구 간의 중복 관계를 분석해 보면 4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I기-고구려 1기, 529년 이후~551년] 고구려가 529년 이후에 보루를 초축하여 주둔하다가, 백제에게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551년에 철수하는 시기이며, 2호 목곽저장시설과 1호 석곽저장시설에서 폐기 후 자연퇴적 양상이 확인된다. ②[II기-신라 1기, 551년 이후~572년경] 신라는 고구려의 보루를 수개축하여 재사용하지 않았지만, 수개축된 고구려 건물의 벽체에 혼입된 신라 토기가 확인된다. ③[III기-고구려 2기, 572년경~590년 이전]신라 북한산주가 폐지되고 남천주가 설치된 567년 이후부터 572년 팔관연회가 개최되는 시기 사이에 고구려가 아차산 일대를 탈환하여 보루를 수축한다. 치가 증설되고, 내부의 동선이 바뀌어 저장시설이 증설되며 대지를 조성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④[IV기-신라 2기, 나당전쟁기] 672년 주장성(남한산성)이 축조되는 나당전쟁기에 신라는 폐기된 흥련봉 보루의 성벽의 치나 내부 석축과 건물지를 개축하여 북한산주의 치소인 아차산성(북한산성)의 보조 시설로 재활용하였다. 흥련봉

53)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63~74쪽. 6세기 후반~7세기대 고구려 토기 편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고구려가 재점유를 한 것인지, 신라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한국고고학회, 2017, 66~69쪽).

54) 광진구, 『아차산 일대 보루군(흥련봉 제1·2보루)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2018, 118쪽.

2보루의 1호 목곽저장시설의 자연퇴적층의 상단부에 매납된 외반구 연호와 홍련봉 1보루에 조성된 석곽묘의 토기가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나당전쟁 이후에는 관방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圖 6] 홍련봉 2보루 유구 3D 모델링 및 단계별 유구 배치

여기서 2004년에 조사된 홍련봉 2보루에서 출토된 2점의 ‘庚子’ 명 토기(圖7-1·2)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판독에 이견이 있었다.⁵⁶⁾ 그렇지만 이를 간지로 하고 경자년을 520년으로 파악한 견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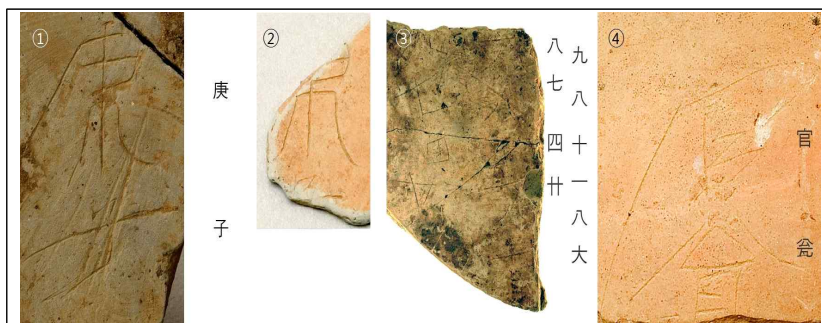
홍련봉 보루에서 출토된 명문이나 기호명 토기 중에서 사용자들

55) 尹星鎬, 앞의 책, 2017(b), 151~156쪽.

56) ‘庚子’로 판독하는 견해도 주목을 받았다(金賢淑, 「高句麗의 漢江流域 領有와 支配」, 『百濟研究』 50, 2009, 35~37쪽; 金榮官,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권 연구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이해 서설-」, 『百濟文化』 52, 2015, 138~139쪽).

57) 崔鍾澤,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研究」, 『先史와 古代』 24, 2006, 285~286쪽;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앞의 책, 2007(b), 179쪽.

파악하거나 습자용으로 새겨진 것도 있지만(圖7-3), ‘경자’명 토기는 소성 이전에 의도적으로 문자를 새겼다. 홍련봉 2보루 출토 ‘官瓮’의 명문이 있는 호(圖 7-4)도 사용 목적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한 필체의 두 점의 ‘경자’명 토기편은 제작 시기를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圖 7] 홍련봉 2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의 명문 자료

그런데 이를 고구려가 홍련봉 2보루를 운영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자’명 토기는 1호 석곽저장시설이 폐기된 이후인 Ⅲ기에 조성된 2호 석곽저장시설에서 수습되었다. 앞 시기의 유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 점은 완형으로 접합이 되는 상태이므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재점령한 Ⅲ기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자’명 토기의 경자년이 580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고구려 관방시설의 축조와 운영 시기와 관련하여 유구와 유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한강유역-중랑천-양주 분지 일대에 보루가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으나, 모든 보루가 고구려가 초축하여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금강-미호천 유역과 같이 백제의 시설을 재활용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아차산 5보루, 천보산 3보루에서는 고구려 유물

58) 尹星鎬, 앞의 책, 2017(b), 152~155쪽.

이 수습되지 않고 신라 유물만 수습된바 있다. 이는 고구려가 축조한 보루 외에도 신라가 축조하거나 개축한 산성의 가시권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한 보루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루의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축조와 운영주체를 검토한 연구가 주목된다.⁵⁹⁾ 따라서 향후 조사를 통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수개축 관계나 신라가 초축한 보루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 유사한 백제 및 중국지역 관방시설과 비교

남한 지역의 고구려 보루에 대한 개념과 분포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백제나 신라의 보루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편이다. 양주 독바위 보루에서 한성기 백제토기가 확인되어 고구려가 보루를 축조하기 이전에 백제도 감시초소 정도의 역할을 부여한 시설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⁶⁰⁾ 그리고 흥련봉 1·2보루를 포함하여 고구려의 보루를 신라가 재사용한 것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한강 유역에서 양주 분지 일대에서는 신라에 의해 사용된 보루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타 지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반면에 백제의 경우는 보루를 축조하여 운영한 사례가 대전 주변지역과 서부경남 지역에서 확인된다.

대전지역의 동편과 동남편의 경우 계족산성이 위치한 계족산 북편 능선을 따라서 질현성 1~6보루가 배치되어 있으며, 식장산 일대에도 국사봉 2보루, 피꼬리봉 보루, 독수리봉 보루, 곤륜산 보루가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⁶¹⁾ 그리고 보루군의 남쪽으로도 식장산 능선을

59)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60) 화서문화재단연구원, 앞의 책, 2018, 23~30쪽.

61)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 백제문화재단연구원, 『대전의 산성 분포조사』, 2012, 254~256쪽.

따라서 계현성, 마달산성, 황골산 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계현성과 마달산성의 경우도 규모는 다소 크지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발굴조사가 진행된 황골산 보루의 경우 백제 유물이 수습되었다.⁶²⁾ 대전지역의 남편에 해당하고 옥천 지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환산 일대 환산 1~6보루가 군집을 이루고 배치되어 있다.⁶³⁾ 이러한 대전 일대의 보루군은 중심 방어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능선상에 소규모 보루를 배치하여 신라의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부경남지역인 진주 서편의 월아산과 장군대봉 일대에도 환상으로 9개소의 보루가 축조되어 있는데, 월아산 보루군에서 붕괴된 석축 유구와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된바 있다.⁶⁴⁾ 입지상 동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므로 7세기대 서부경남 지역으로 진출한 백제가 신라에 대항하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보루군도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 조사가 미비하여 고구려 보루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의 보루 운영이 백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지역 고구려 보루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⁶⁵⁾ 중국에서 기왕의 조사는 대형산성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왕에 중국지역의 고구려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성곽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루의 특징을 지니는 산정식에 소규모 관방시설로 분류가 가능한 사례들도 확인된다.(表1-10~18, 24~28) 그리고 보루와 유사한 성격의 관방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圖8)

62)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황골산 보루 유적』, 2014, 22~27쪽.

6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新羅 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2003, 90~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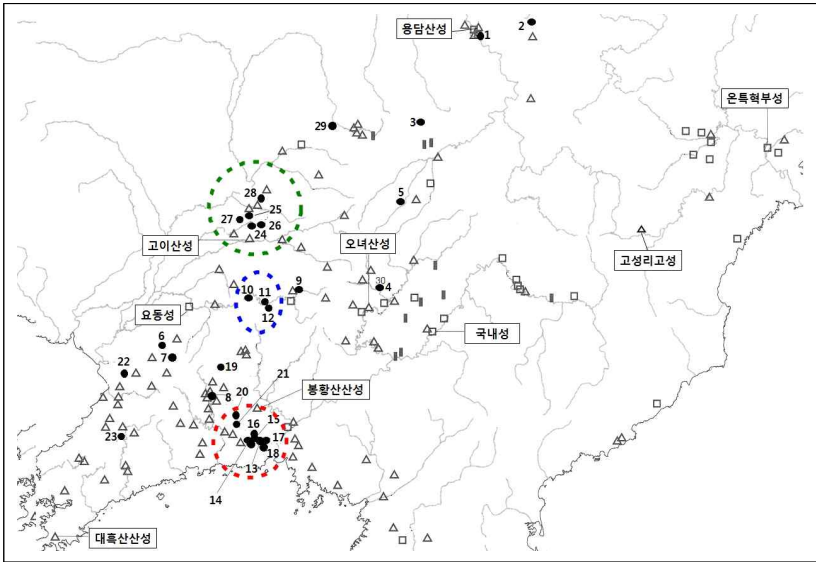
6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성곽』, 2008, 65쪽 ; 국립진주박물관, 『서부 경남의 성곽』, 2011, 66~71쪽.

65)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연번	명 칭	위 치	둘 레(m)	축성방식
1	東團山城(內城)	吉林省 吉林市	500	토석혼축
2	東山山城	吉林省 吉林市/蛟河市	200	토석혼축
3	大馬宗嶺山城	吉林省 吉林市/磐石縣	300	토석혼축
4	建設山城	吉林省 通化市/通化縣	300	석축
5	釣魚臺城址	吉林省 通化市/輝南縣	200	토석혼축
6	南臺山城	遼寧省 鞍山市/海城市	200	토축
7	窯溝山城	遼寧省 鞍山市/海城市	200	석축
8	茨溝山城	遼寧省 鞍山市/岫岩縣	(장축 45)	석축
9	黃嵐山城	遼寧省 撫順市/新賓縣	200	석축
10	有官山城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400	석축
11	下堡山城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300	석축
12	馬平溝山城堡址	遼寧省 本溪市/本溪縣	(남북23, 동서19)	석축
13	雪洼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200	석축
14	樓房屯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100	석축
15	佛老房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200	석축
16	常家溝城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100	석축
17	高家堡山城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300	석축
18	周家溝遺址	遼寧省 丹東市/東港市	400	석축
19	靑城山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100	토석혼축
20	尖砬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200	석축
21	團結山城	遼寧省 丹東市/鳳城市	200	석축
22	五官山城	遼寧省 營口市	300	석축
23	高力城山城	遼寧省 營口市/蓋州市	300	석축
24	長樓子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토축
25	嶺西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토석혼축
26	后營盤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남북100, 동서50)	석축
27	靑山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80	석축
28	下裕山城	遼寧省 鐵嶺市/鐵嶺縣	-	석축
29	缸窯山城	遼寧省 鐵嶺市/西豐縣	70	토석혼축

[表 1] 중국 지역의 소형 산정식 산성 현황⁶⁶⁾

www.kci.go.kr
 66) 양시은, 앞의 책, 2016, 252~268쪽, 고구려 성 일람표 편집.



[圖 8] 중국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소형 산정식 산성의 배치⁶⁷⁾

요령성 本溪 지역의 有官山城, 下堡山城, 馬平溝山城堡址는 석축 성벽에 둘러 300~400m의 규모이다. 丹東 지역의 경우 雪洼城址, 樓房屯城址, 佛老房城址, 常家溝城址, 高家堡山城, 周家溝遺址가 있으며 둘러 100~400m의 석축 성벽이 확인된다. 또한 요령성 鐵嶺 지역의 長樓子山城, 嶺西山城, 后營盤山城, 靑山山城, 下裕山城도 규모가 미상이나 소규모 관방시설로 토축, 토석혼축, 석축의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규모 관방시설은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지역의 보루와 구조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철령 지역-본계지역-단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치는 대체로 요동에서 주요한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형 성곽들의 중간에서 방어선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67) 양시은, 앞의 책, 2016, 21쪽, 삽도Ⅱ-2 편집.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의 입지와 정반대로 고구려의 북쪽 변방에 해당하는 吉林 東團山城과 龍潭山城은 부여를 거쳐 고구려 까지 사용되었다.⁶⁸⁾ 이 중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단산성 내성(表1-1, 圖9)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단산성의 내성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었으나 대체로 둘레 500m의 산정식 토석혼축성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고구려 외편이 수습되고 있다. 또한 송화강을 전망하는 입지나 구조에서 남한 지역 보루와 유사하다. 즉, 길림 동단산성 내성의 경우 기존 외성과 중성이 폐기되고 최후 단계에 정상부에서 동단산성의 보조성 또는 별도의 감시용 관방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한 지역의 보루와 성격이 유사하다.



[圖 9] 길림 동단산성 내성 모형(吉林市博物館), 동단산 원경과 수습된 고구려 외편

한편 앞서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 중에서 연천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서 작은 하천과 합류하는 삼각형 하안단구에 한쪽면만 성벽을 축조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사한 구조의 관방시설로 두만강변의 吉林省 和龍 古城里 古城

68) 서길수, 「吉林 東團山 주위의 고구려 유적·유물에 관한 연구」, 『文化史學』 6·7, 1997 ; 董學增, 『夫餘史迹研究』, 吉林出版集團-吉林文史出版社, 2011.

이 주목된다.(圖10) 고성리 고성은 두만강과 흥기하의 합류지점 서쪽 단애에 위치하는데, 전체 둘레는 710m이다. 호로그루를 비롯한 임진강 일대의 강안성은 두 면의 자연절벽을 이용하고 평지와 연결되는 한쪽면에 성을 쌓았으나, 고성리 고성은 동서벽과 북벽 일부에서 석축이 확인되고 남벽은 자연 절벽을 이용한 구조이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성내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지 않아서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지형의 유사성과 성의 형태는 임진강 유역 강안평지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⁶⁹⁾



[圖 10] 삼각형 하안단구에 축성된 관방시설과 화룡 고성리 고성⁷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과 유사한 구조나 성격의 백제 보루와 중국 지역의 소형 산정식 관방시설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기술적인 기원이나 전파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9) 동북아역사재단,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中國 吉林省 東部』, 2010, 216~217쪽. 인근 화룡 대동촌에서 확인된 발해 유적과 관련하여 고성리 고성을 발해 성곽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吉林省文物編纂委, 『和龍縣文物志』, 1984). 향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축조 주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70) 화룡 고성리 고성 도면 및 사진 출처는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2010, 218~220쪽.

4. 결론

지금까지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의 조사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을 금강-미호천 유역권, 한강-중랑천 유역권, 양주 분지권, 임진강-한탄강 유역권의 4개 지역군으로 구분하고, 최근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70여 개소 이상의 고구려 관방시설이 확인되었고, 2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관방시설은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단시간 내의 수개축 상황이나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소규모의 관방시설이라는 점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축조기법에 대해서도 연구자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 관방시설이 초축된 시기나 운영된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여러 설이 제기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관방시설이 고구려만 사용한 것인지 재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운영양상에 대한 연구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금강-미호천 유역권의 백제의 판축 토성을 고구려가 재사용하여 축조한 목책도니성 유형, 둘째 한강-중랑천 유역권과 양주 분지권의 산정식의 둘레 300m 미만으로 군집을 이룬 보루 유형, 셋째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자연 지형을 이용한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강안 평지성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고구려의 남진과 결부하여 5세기 이전에 임진강-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한 I기와 5세기 중반경에 춘천-홍천-원주-충주의 경로로 남하하여 충주를 국원으로

삼아 남쪽 대전까지 진출하고 백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목책도니성을 설치한 II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한강을 도하하여 탄천을 따라서 용인 일대까지 남하한 뒤에 백제와 한강 유역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보루를 설치한 III기로 남진의 방향과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계의 설정이나 남진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는 추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진의 단계를 설정하고 학계의 논란이 많은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를 중심으로 운영시기를 재검토하였다. 고구려토기의 정치한 편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편년안이 제기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강-중랑천 유역 관방시설의 운영시기에 대한 통설은 6세기에 초축되어 6세기 중반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통설에 대하여 보루의 수개축과 유구의 중복관계 및 신라토기의 분석을 통하여 6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가 재남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운영시기에 대한 연구도 향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다 정치한 분석과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 지역 고구려 관방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한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보루와 유사한 백제의 보루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보루는 고구려 보루보다 늦은 6~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조사가 미비하여 선후 관계나 기술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지역에서도 보루의 특징인 산정식의 둘레 300m 미만의 소형 관방시설이 확인된다. 대형 산성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소규모 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지만, 길림 동단산성 내성의 구조나 입지에서 남한 지역 보루와 유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화룡 고성리 고성의 경우에도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호로그루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강안평지성의 형태를 보여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임진강-한탄강 이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에서도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성곽에 대한 조사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진강-한탄강 이북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대한 고구려 관방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의 북쪽과 서쪽 변경지대에 대한 소규모 성곽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대형 관방시설과 소규모 관방시설의 조합이나 배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남한지역 관방시설의 기술적인 계보나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2018년 제3회 한중 고구려사 신진학자 학술회의”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

(원고투고일 : 2019. 1. 9,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고구려, 관방시설, 산성, 보루, 토성, 금강, 한강, 임진강, 양주분지, 아차산

<참 고 논 저>

1. 저서 및 논문

- 김길식, 「대전 월평산성 출토유물과 점유세력의 변화 -관방시설 축조기법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7, 2017.
- 金英燮, 『峨嵯山 高句麗 堡壘群의 재고찰』, 檀國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9.
- 김진영,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8, 2017.
- 金賢淑, 「高句麗의 漢江流域 領有와 支配」, 『百濟研究』 50, 2009.
- 박중균, 「父母山城 出土 土器의 樣相과 性格」,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2013.
- 박중균, 「장미산성 출토 土器의 양상과 성격」, 『東亞世亞 歷史文化論叢』, 서경문화사, 2014.
-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包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3, 1999.
- 白種伍,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6, 2007.
- 白種伍, 「中原地域 高句麗 遺蹟 遺物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50, 2014.
- 서길수, 「吉林 東團山 주위의 고구려 유적·유물에 관한 연구」, 『文化史學』 6·7, 1997.
- 서영일,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研究」, 『文化史學』 17, 2002.
- 신광철, 「고구려의 중원 지역 진출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심광주·윤우준, 「문화유적」,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사구리문화원, 1994.
- 沈光注, 「南韓地域의 高句麗 유적」, 『高句麗研究』 12, 2001.
- 심광주,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 심광주,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 『과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 안성현, 「흥련봉 1·2보루의 축조방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5, 2016.
-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2010.
- 양시은,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2016.
- 양시은, 「서울지역 고구려 보루 유적 조사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고중세 성곽유적에 대한 주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제6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서울특별시·한국고고학회, 2017.
- 양시은, 「백제 웅진기 동북쪽 영토와 지방지배」,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2018.
-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 윤성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서울과 역사』 96, 2017(a).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17(b).
-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高句麗渤海研究』 51, 2015.
- 이정범, 「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유적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미」, 『한·중·일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고구려·발해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7.
- 이정은·김현우, 「연천 무등리 보루군 발굴조사의 성과」, 『연천 무등리 보루군의 성격과 의미(무등리 보루군 사적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 자료집)』, 연천군·고구려발해학회, 2018.
-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축성 주체와 위상」, 『백제연구』 63, 2016.
- 이형호,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土器 研究』, 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14.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 정운용, 「清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構造와 運用」,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
-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 山城과 關防體系』, 고구려연구회, 1999.
- 최종택,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역사적 성격」, 『鄉土서울』 64, 2004.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 최종택, 「호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百濟研究』 63, 2016.

2. 관련 보고서

- 건국대학교 박물관·광진문화원, 『서울 廣津區 峨嵯山龍馬山 地域 文化遺蹟 地 表調査 報告書』, 1998.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2016(a).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 2016(b).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 2017.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양주 태봉산 보루』 III·IV, 2018.
-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 문화유적(1)』, 2001.
- 京畿道博物館,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2005.
- 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II -시굴조사 보고서-』, 2008.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綜合報告書-』, 2007(a).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紅蓮峰 第2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b).
-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峨嵯山 第3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c).
- 광진구, 『아차산 일대 보루군(흥련봉 제1·2보루)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2018.
-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99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의 성곽』, 2008.
-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 月坪洞 遺蹟』,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 表調査報告書 : 京畿道篇』,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 국립진주박물관, 『서부 경남의 성곽』, 2011.
- 국방문화재연구원, 『수락산 보루 종합정비 계획』, 2018.
- 기남문화재연구원, 『안성 도기동산성』, 2018.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a).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Ⅰ)-』, 2004(b).
- 동북아역사재단, 『高句麗城 사신자료집 -中國 吉林省 東部』, 2010.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의 산성 분포조사』, 2012.
- 백제문화재연구원, 『대전 황골산 보루 유적』, 2014.
- 서울대학교박물관,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0(a).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b).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시루봉 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2.
- 서울대학교박물관,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09.
- 서울대학교박물관, 『시루봉보루』Ⅱ, 2013.
- 서울대학교박물관, 『양주 천보산 2보루』, 2014.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1보루 정밀 발굴조사 약보보고서』, 2017.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배봉산 보루 유적』, 2018(a).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중랑구 봉화산보루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2018(b).
-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소재 성곽 조사 보고서』, 2003.
- 세종대학교박물관,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유적』, 2016.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4.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5.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中部考古學研究所, 『坡州 德津山城 -3次 學術發掘調査 中間 報告書』, 2016.
- 中部考古學研究所, 『과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학술발굴조사

- 결과보고서』, 2017.
- 中部考古學研究所, 『과주 덕진산성(6차)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중원문화재연구원, 『淸原 IC~芙蓉面 道路工事區間內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2008.
- 中原文化財研究院, 『忠州 薔薇山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6.
- 중양문화재연구원, 『行政中心複合都市 中央綠地空間 및 生活圈 2-4區域 內 低濕8遺蹟(北岑) 燕岐 羅城里遺蹟』, 2015.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新羅 百濟激戰地(管山城) 地表調査報告書』, 2003.
- 忠北大學校博物館,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4.
-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정북동토성』 IV, 2018.
-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1996.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홍련봉 1:2보루』, 2015.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6.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홍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a).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3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7(b).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아차산성 남벽 및 집수지 발굴조사 4차 자문회의 자료집』, 201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III(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IV(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천 전곡리성 -전곡선사박물관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한양대학교 박물관,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한울문화재연구원, 『연천 호로그루 동벽 남측 치성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 허서문화재연구원,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시굴조사 및 1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Abstract>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Researches about Goguryeo's Facilities in the area of South Korea

Yun, Sung-ho

The number of military facilities left after Goguryeo's entry into the area of South Korea has been 70 places, and 20 ones have been excavat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the area of South Korea by combining them with the four regions of the Geumgang River-Mihocheon stream basin zone, the Hangang River-Jungnangcheon stream basin zone, the Yangju basin zone, and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The results of major excavation surveys in each region were reviewed, and the pres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tudy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were described.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types of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The first is the type of breeze castle recycled Baekje's Earthen Fortification in the Hangang River-Mihocheon stream basin zone, the second is the type of Fort in the Hangang River-Jungnangcheon stream basin and the Yangju basin zones, and the third is the isosceles triangle in the isosceles triangle using the natural topography of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We divided the time period by associating these types of military facilities with Goguryeo's southern region. The 1st Period of the three ones was the time when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basin zone was constructed before the 5th century and constructed Military facilities. In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the 2nd period was a time when Chungju was used as a Gukwon. And the 3rd period was the time when King Jangsu of Goguryeo captured the capital of Hansung Baekje in 475 and Goguryeo built a Forts by fighting against Baekje in the Hangang river basin zone.

Next, the operation period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the Hangang River basin zone was reviewed. It is common idea to use it from the 6th century to the mid-6th century. However, recent analysis of the Forts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Goguryeo had come back south after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Finally, we looked at facilities similar to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in South Korea. The Forts of Baekje in the 6th to 7th century, similar to the Forts of Goguryeo, have been identifi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re is a small Fort in China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fortress

It is not yet investigated, but if these data are secured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to restore the genealogy and operation method of the Goguryeo's Military facilities and to fill the vacancy of the ancient military History of Korea.

Key words : Goguryeo, Military facilities, Mountain fortress, Fort, Earthen Fortification, Geumgang River, Hangang River, Imjingang River, Yanagju basin, Mt. Ahasan